

“청년도시 광주 배우자”... 전국서 벤치마킹

전담부서 등 지역형 정책 성과

서울·부산 등 10여곳 잇단 방문

‘청년도시 광주’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청년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시흥시·충남도 등 10여 곳이 광주시를 방문한데 이어 최근 경기도, 전북도, 전주시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청년업무 전담부서 신설이다. 지자체들은 부서별로 흩어진 청년 관련 업무를 종합하는 역할부터 청년들과의 소통까지 청년 부서의 운영 전

반을 세심히 살폈다. 지난해 서울, 울 1월 충북도에 청년부서가 신설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전국 최초로 청년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민·관 협치를 실현하는 광주 청년위원회 구성과 활동, 청년조례 제정 등 청년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에도 관심이 높았다.

청년위원회는 지난해 30여 차례가 넘는 토의와 토론을 거쳐 청년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9건이 2016년 도 광주시 청년정책에 반영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이 시정 참여를 통해 시민 주제로 성장하며 행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예선과 함께 서울·수도청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앞두고 광주시를 다녀갔다. 광주시는 일자리·문화·복지·사회인식·정책인

지 등 청년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는 고용 통계에 집중된 청년실태 파악의 범위를 넓히고 정책 당사자의 욕구를 분석해 단기 해법과 장기 비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 청년센터, 청년축제, 청년의거리, 청년창업공간 조성 등도 대구시, 부산시, 충청북도 등이 센터와 축제, 청년특화거리 조성 등 유사 사업을 계획하면서 광주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보영 경기도 청년업무 담당자는 “청년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찾아 보니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곳이 광주시와 서울이었다. 광주시의 청년정책과 추진 과정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다. 이정석 시 청년인재육성과장은 “광주시와 의의회는 물론, 지역사회는 청년을 특정 세대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광주의 여건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우뚝 서도록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9월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한 광주시는 올해 시장의 최우선 과제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세우고 29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청년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을 보완하고 3대 벨리 조성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찾아가는 한편, 청년의 권리 증대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올해 청년창업·문화사업 다채

먹거리 창업 경연대회 보조사업자 모집

광주시는 지역 우수 청년상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청년상인경연대회’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광주시 소재를 두고 해당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역량이 있는 업체 또는 단체이며, 참여 희망 업체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사업자 공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4월4일 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청년상인경연대회는 지역에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년상인들과 예비창업자 중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 청년상인’을 발굴해 청년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대회다.

시는 TF회의와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 광주지역 청년사업체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최근 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음식 분야로 특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예선을 통해 선발된 청년상인들은 멘토링과 브랜딩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대회 주제(특목 튀는 청년상인들이 만드는 맛있는 광주먹거리)에 맞는 상품을 출품해 최종 수상자를 가리게 된다.

이정석 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장은 “단순히 청년상인을 선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시·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자 커뮤니티를 구성해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청년문화기획 유망주 양성교육

광주시는 ‘청년문화기획자 육성’ 프로그램 ‘유망주 2016’사업에 참여할 청년문화기획자를 오는 4월3일까지 모집한다.

‘유망주 2016’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이론과 현장실형교육, 공동 프로젝트 수행, 전국 청년문화기획자 네트워크 포럼 등 과정을 거쳐 현장 필수인력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각 분야에서 자신의 기획을 통해 실행을 해본 경험자를 우선 선정한다. 선정 인원은 총 15명 내외다.

선정된 청년기획자에게는 공동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기회 2회, 담당코치의 지속적인 멘토링,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광주광역시 수료증 등 특전이 제

공된다. 한편, 지난 2월까지 진행된 ‘유망주 2015’사업에서는 총 9명의 청년문화기획자가 전시, 공연, 도시재생, 관광, 커뮤니티 등 각 분야별 멘토링을 통해 광주의 틈새시장을 채우는 ‘Like! 시티투어, 대인시장 파브르, 사직동 1,000년 여행, 제1회 재즈 페스티벌’ 등을 선보였다.

또한, 전국청년문화기획자 네트워크 포럼 ‘청년ing’을 개최해 청년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 14일에는 각 분야 전문가 7명과 2016 청년문화기획자 사업 방향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 시장, 국토부 장관 면담...첨단산업 규제 완화·경전선 전철화 지원 건의

윤장현 광주시장이 24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시첨단산업,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윤 시장은 이날 강 장관과 면담에서 현재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남구 압촌·석정·대지 등 일원)를 에너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고 특례를 적용해 산업 개발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 4대 간선철도망 가운데 유일한 단선·비전철 구간인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113km)의 전철화 사업의 조기착수도 당부했다. 골자는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와 함께 올해 기본계획

용역 시행이다.

오는 8월 수서발 고속화철도의 개통에 맞춰 고속철도 평균 배차시간의 20분대 축소를 광주~김포 항공노선 감축에 따른 인천공항 접근성 개선 및 광주송정역사의 증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광주송정역~광주역 간 셔틀전동차 운행, 광천4거리 및 백운광장교차로 혼잡도 개선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긴밀한 협조로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장현(왼쪽) 광주시장이 24일 강호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안에 대한 지원 건의의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가부 사업 선정 친환경 디자인 인력 20명 양성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경력단절여성 전문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24일 밝혔다.

선정된 ‘친환경 제품 설계디자인 양성과정’은 광주지역 디자인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4월28일까지 20명의 인력을 대상으로 오는 5월

9일부터 8월23일까지 총 350시간 진행되며 전액 무료다.

이달주 본부장은 “광주지역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생 모집은 4월28일까지다. 문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새로일하기센터 062-613-799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시공사, 시각 장애인 주거 안전 약속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왼쪽에서 세번째)는 지난 23일 빛고을고객센터 15층 중회의실에서 (사)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갑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각 장애인의 편의제공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협약 내용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가정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 ▲장애 재활 및 예방 ▲생활안전보건교육 ▲시각장애인 협회 프로그램 활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5월, 그날의 기억’ 토크콘서트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장 나간재)은 25일 오후 3시 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집담회 ‘5월, 그날의 기억’을 개최한다.

이날 집담회는 김태종 기록관 연구실장(1980년 5·18 당시 분수대 쫓겨난 피해자)이 사회를 맡고, 당시 금남로에 거주한 박관용(예술의거리 변영희 초대 회장), 강점수(내일토식당 대표), 강연준(화가)씨가 1980년 5월 자신이 겪은 광주, 금남로의 경험을 시민과 공유한다.

5·18민주화운동의 참혹한 진상을 고

발한 회화 작품 ‘하늘과 땅 사이의’ 작가 강연준 회백은 계엄군이 물러난 이후의 도청 모습과 작품을 그린 계기, 박관용씨는 당시 광주경찰서(현 동부경찰서)에서 시위대와 공수부대의 대치 상황, 강점수씨는 공수부대에 의해 부상한 긴박했던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나간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이번 집담회는 일반 시민들의 기억속의 1980년 5월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5월 정신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 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후 20억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수학여행, 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3억)후 연 5억원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